

네 가지 표준 (4-way test)

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쇄, 인용되고 있는 직업 윤리에 관한 글귀는 로타리의 “네 가지 표준”이다. 이것은 로타리안인 허버트 테일러가 파산 위기에 있는 시카고의 알루미눔 회사를 맡게 된 1932년에 만든 것이다. 테일러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 회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.

그리하여 그는 24개의 단어로 모든 직원이 사업 및 전문 직업 분야에서 행해야 할 윤리 강령의 초안을 잡았다.

네 가지 표준은 판매, 생산, 광고, 그리고 다른 사업가들과 고객과의 관계를 위한 지침이 되었고, 이 단순한 원칙이 회사를 살아남게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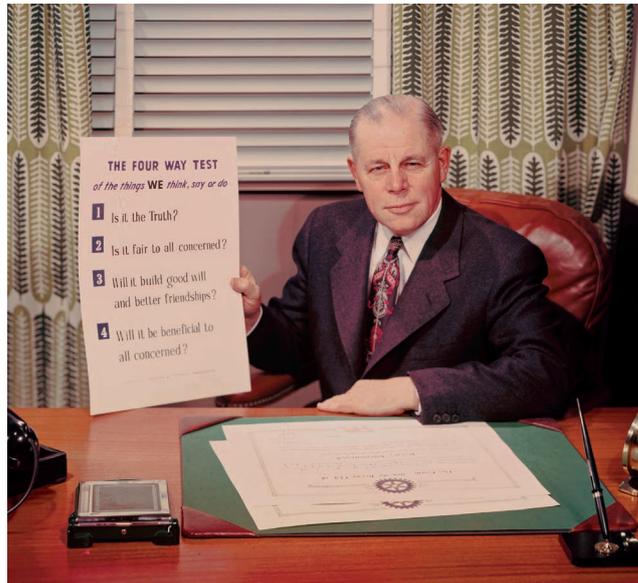
허버트 테일러는 1954-55년도 국제로타리 회장이 되었다. 로타리는 1943년에 네 가지 표준을 정식 채택했고,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, 다양한 형태로 발간됐다.

모든 로타리안은 이 네 가지 표준을 알아야 하고, 또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:

네 가지 표준 “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

1. 진실한가? 2. 모두에게 공평한가?
3.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? 4. 모두에게 유익한가?”

네 가지 표준을 창안한 허버트 테일러 전회장



네 가지 표준

우리가 생각하고, 말하고, 행동하는 데 있어서

1. 진실한가?
2. 모두에게 공평한가?
3.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?
4. 모두에게 유익한가?